

용산참사 구속자 특별사면 청원

총무원장 자승스님, 이명박 대통령에 전달

오는 20일 용산참사 3주년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구속돼 복역 중인 이종연 씨 등 철거민 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2월 청원서를 통해 "아직도 용산참사로 인한 비극이 계속되고 있어 종교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용산참사 희생은 세입자의 권리와 철거민에 대한 사정대비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은 온전히 철거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제라도 관련자들에게 대해 화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구속자 대부분은 이미 정가 절반 이상을 살았고 하루하루 생존이 버거운 가난한 시민들"이라

며 "정부가 이들 손을 잡아주지 않고 사회통합을 외치는 것은 공허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자승스님은 전달에 앞서 구속 철거민들에게 위로 편지와 (당신은 부처님), 108염주, 염치구 등을 전달했다. 편지에는 "빠른 시일 내 나

구속 철거민에게 위로편지 책 108염주 영치금도 보내

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사회부는 밝혔다. 조만간 '용산철거민참사법국민대책위원회'를 발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총무원장 스님은 2009년 11월 취임 직후 첫 방문지로 용산참사 현장



2009년 11월 용산참사 현장을 찾아 희생자 빈소에 분향하고 있는 총무원장 자승스님.

을 찾아 희생자 빈소에 분향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또 철거민 희생자 유가족과 순직한 경찰 유가족들을 총무원에 초청해 만남을 가졌다.

용산참사는 지난 2009년 1월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을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하던 민

면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구속된 철거민 8명은 징역 4년~5년5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정부는 실을 앞두고 생계형 민생사범 400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지만 용산참사 관련 구속자들은 사면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총대령 기자

이웃 위한 나눔결사 '활발'

안국선원 화계사 청림회 면목산악회 기금전달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려는 나눔결사가 활발하다. 재단법인 안국선원과 서울 화계사, 대전비구니청림회, 면목여니산악회 등의 온정의 손길이 잇따랐다.

재단법인 안국선원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제선센터와 불교여성개발원 여성경광장 건립기금으로 총 3억원을 지정 기탁했다.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은 지난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공식법인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하고 기금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뜻깊은 불사에 동참해 준 수불스님에게 감사하다"며 "많은 기금을 전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은 "학교와 단체 사업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이 기금이 증자되어 더욱 큰일을 펼쳐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영종 총장은 "여러 곳에서 손길을 내밀어 현재까지 약 23억원이 모였다"며 "국제선센터 건립이 원만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름다운동행은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2



수불스님 안국선원장



수암스님 화계사 주지



성린스님 대전비구니회장



서영래 면목여니회장

블어 유원초교, 화계중학교 등에서 추천한 학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화계사 주지 수암스님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원만한 학교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비구니청림회 회장 성린스님도 같은날 아름다운동행 사무실에서 사무총장 해일스님에게 태극수해구호기금 388만4000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청림회가 지난해 12월 성도제일을 맞아 개최한 '부처님 성도절 문화예술제'에서 모인한 기금 전액이다. 대전비구니청림회 합참단은 지난해 11월 불교합참패스 특별 신작찬불가 경연대회 대상 수상금 500만원 전액을 아름다운동행에 수해구호기금으로 전달한 바 있다.

면목여니산악회도 다음날인 1월31일 저녁나눔기금으로 500만원을 전달했다. 면목여니회장은 "산악회 회원들이 심시할만한 화비와 후원금으로 기금을 모은 했다"며 "난치병 어린이 등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인택·총대령 기자

"공직자 선출제도 개정 요청"

범어서사 관련 긴급간담회 개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비롯한 종단의 주요 소임자 스님들이 범어서사 급진적 의혹과 관련,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주요 소임자를 대거 소집해 종단 현안 관련 긴급간담회를 열고, 범어서사 급진적 논란에 관한 대책을 숙의했다.

스님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종단의 특정 고위본사 주지 소임 선출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를 떠나 깊은 우려와 함께 우선 불자 여러분께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의견을 정리했다.

또한 재보사항과 보도내용을 신속하고 엄중히 조사해 미발치 리해야 한다는 뜻을 총무원 호

범어서사 전달했다. 중앙 및 고구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 재조정, 중앙총회에는 공명대회의를 비롯한 종단의 공직자 선출제도 개정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무원 기획실장 정만스님은 "일부 언론의 이른바 범어서사 동부부 의혹 보도가 과장되고 편파적인 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이런저런 종단 내부의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범어서사 관련 대책을 숙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비공개로 진행된 긴급간담회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 중앙총회회장 보선스님, 호계원장 법담스님, 교육원장 현승스님, 대교원장 지원스님 등 종단 지도부 스님 전원과 종원총동맹기 구 대표, 다수 중앙총회위원을 포함한 27명의 스님이 참석했다.

정영실 기자 fse@buddyo.com

"정법 펼치는 법조불자 서원"

법조인불자회 신년법회 봉행

법조불교인연합(회장 임재진)은 지난 1월31일 분은사 범영루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스님을 범사로 모시고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철중총장을 역임한 김중민 신도회장이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지원스님은 "여러 분야에서 불자들이 활발

하게 활동할 때 불교가 발전할 수 있다"며 "법조인의 정법을 바로 세우는 데 법조인불자회가 앞장서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재진 회장은 전일 임원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한데 이어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의 신심 고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자"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자비신행회 '나눔의 날' 시상

광주지역 재가불자들의 복지·교육 공동체인 사단법인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가 주최한 '2012 아름다운 자비나눔의 날' 시상식이 1월27일 광주 수지다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노인복지부문에 이준순·유명선·오대숙·백기해·정희원 씨가, 청소년 및발달장애 부문에는 최길삼 씨, 차문화 부문에 오순 씨, 발자부문 차이나눔 씨 가족, 호프스 부문에는 박윤희 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후원자(단체)부문에 김은희·(주)미지

원·무진로더가, 특별상에는 유호현 씨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와 더불어 일정기간 자원봉사 활동을 통과한 봉사자에게 주는 인증 배지 시상도 진행됐다. 시상에는 봉사활동 1000시간을 넘긴 11명의 봉사자에게 골드 배지, 500시간과 2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각각 실버 배지와 그린 배지가 주어졌다. 이와영 이사장은 "우리 사회 나눔 실천과 자원봉사에 참여 문화 확산이 자비신행회가 꿈꾸는 세상"이라며 "작은 정성과 참여를 모아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호남지사=진재훈 기자

스리랑카 근로자 위한 법당 추진

부산 청량사, 연내 마련 예정

부산지역 스리랑카 근로자를 위한 법당이 마련된다. 부산 명지동 청량사(주지 운암스님)는 지난 1월 29일 스리랑카 근로자를 위해 수마나사리 스님을 초청해 법문을 가진 자리(사회)에서 "청량사에 스리랑카인을 위한 법당을 개설하고, 사찰 인근에 스리랑카식 법당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당에는 스리랑카 스님이 머물면서 스리랑카 노동자를 대상으로 법회 및 각종 상담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법회는 스리랑카 대사관 관계자와 이법원 원대원법주인 위령장, 노고사·경남지역 스리랑카 근로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 온지 11년이 됐다든 지든 씨는 "그동안 다문화가정을 위



한 행사는 많이 있었지만, 스리랑카 노동자를 위한 문화행사는 거의 없었다"며 "법당과 법당이 개설되면 노동자들에게 매우 큰 정신적 위안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법회에 이어 참석자들은 스리랑카 음식을 먹으면서 오랜만에 고국의 정취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청량사에는 스리랑카식 임시 법당이 마련돼 있으며, 스리랑카 출신 수마나사리 스님이 주석하고 있다. 최병문 부산지사장

연등장학제단 장학금 전달식

연등장학제단(이사장 범등스님)은 지난 1월30일 대구시 동부교육청 강당에서 영남지역에 재학중인 중·고·대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범등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이며, 21세기 새로운 문명시대를 선도할 주역"이라며 "배움에 대한 열정을 아낌없이 가꿔나가길 바란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에 대법장학생을 대표해 배상현(경북대 국어교육과)은 "스님들의 격려에 부응하도록 더욱 학업에 열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004년 제2석굴암 주지 범등스님의 원력으로 발족한 연등장학회는 그동안 300여 명의 학생들에게 2억6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50명에게 모두 3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박원호 대구·경북지사장

대한불교조계종 특수학교

종립불교어산작법학교 학생모집

본 학교는 어산작법(법제작법)과 불전익시 전만을 연구 계승하고 불교의식을 올바르게 집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불교의식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조계종 교육법과 어산학교 설치령에 의거 설립하여 이에 불교의식 전만을 연구할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본 학교의 소정 교과과정을 이수한 스님에게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에서 인정하는 졸업장과 3급 승가교시 응시자격 인정함.

● 모집학과 및 교육기간

- 1) 본 과 : 불전익시전만과정 - 2년(4학기)
- 2) 전문어산과 : 3년
- 3) 작 법 과 : 1년과정

● 교육내용

- 1) 본과(2년과정) 수료후 3급교시 선방4단계 수여(해)
 - 일용의식(도량식, 종숙, 예경, 거간예법, 향수예법, 사성예)
 - 상용의식(불공, 천도제, 시식)
 - 제반의식(집안, 이문, 방생, 다비시디리, 관불, 동양, 소심경, 포살, 수계)
- 법제작법도 병행해서 교육함
- 2) 작법과 : 바라무작법, 나미무작법
- 3) 전문어산과 : 상주권공, 안채비, 깃소리 (3년과정 수료후 3급교시 선방4단계 수여(해))

● 응시자격

- 1) 본 과 : 조계종승려로서 구족계를 수계한 자 (4월 구족계 수여 예정자도 응시가능)
- 2) 전문어산과 : 구족계 수지하고 본과전과전종 졸업한 자
- 3) 작 법 과 : 승려 및 재가불자도 가능함

● 제출서류

- 본과 : 입학원서(소정양식), 승적증명서, 조계종부기교육기관 졸업증명서 각1부, 반명함판사진 2매
- 본과 외 : 입학원서, 이력서, 반명함판사진 2매

● 면접일자 : 2012년 2월 20일(월) 오후 2시

● 문의처 : 서유시 성북구 안양동5가 8번지 보타사 내 대한불교학처 ☎ 02)921-3425 (6호선 안양역 2번출구 개운사 방향)

☎ 대한불교조계종 어산작법학교장

법주사 승가대학(강원) 학인모집

불기2556(2012)년 법주사 강원 신입 및 편입 학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모집기간

- 1차 : 3월 1일 ~ 3월 7일까지(양력)
- 2차 : 3월12일 ~ 3월18일까지

모집대상

- 치문반(입학생) 00명
- 사집반(편입생) 00명

제출서류

- ①입학원서(본사소정양식) 1부
- ②추천서 1부
- ③승려증(승계증명서, 수계교육필증) 1부
- ④주민등록등본 1부
- ⑤건강진단서 1부
- ⑥사진 3×4(오초착용) 3장

준비물

오조가사, 만의(사미), 장삼, 발우

진행

서류심사 및 면접

문의처

강원 ☎(43)543-6783 총무소 ☎(43)543-3615

法住寺 僧伽大學(講院) 講主 香山 撒雲

